

# 연극같은 삶을 음미하는 매력

##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⑥

김미도

연극평론가·고려대 강사

연극만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고급예술도 드물 것이다. 음악, 미술, 무용 등은 오랜 세월 동안 감상의 연륜이 축적되어야 그 참맛을 알 수 있지만, 연극은 첫 감상으로부터 친숙함과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연극이 모든 예술 가운데 인간의 '삶'과 가장 닮아 있는 예술형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연극은 우리의 '삶'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으로서 살아 있는 인간(배우)을 사용한다. 영화나 TV드라마가 평면적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비해 연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3차원의 공간 안에서 배우들의 전존재가 그대로 노출된 채 창조된다.

연극과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몇권의 책을 섭렵한다면 금세 매우 고급한 관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에 관한 모든 것을 개괄적으로 알고 싶다면 오스카 G. 브로코트의 《연극 개론》(김윤철 옮김, 한신문화사)이 최적적이다. 이 책은 900페이지가 넘는 만만치 않은 분량이지만, 연극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부터 대략적인 서양연극사의 흐름과 동양연극의 특징, 그리고 연극을 창조하는 주요 스태프들의 역할과 기능에 이르기까지 연극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을 총망라하여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과 유사한 내용이면서 보다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필리스 하트놀의 《세계의 연극》(서연호 옮김, 고려대 출판부)이나 이근삼의 《서양연극사》(담구당)가 있다.

### 무한한 연극적 상상력

근현대 연극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버나드 헤위트의 《현대 연극의 사조》(정진수 옮김, 흥성사)와 마거렛 크로이든의 《20세기 실험극》(송혜숙 옮김, 현대미학사)을 권할 만하다. 앞의 책은 근현대 연극의 주요 양식인 낭만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잔혹극, 서사극, 부조리극 등을 해설하고 있다. 뒤의 책은 20세기 연극의 주요 흐름인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잔혹극을 비롯하여 동시대적 실험연극인 해프닝, 리빙 씨어터, 그로토프스키의 '가난한 연극', 오픈 씨어터, 환경연극, 피터 부룩의 작업 등까지 다루고 있다.

그런데 흔히 서양연극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들을 일별해보면 그 많은 부분이 기실은 희곡사로 채워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연극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희곡만이 고정불변의 체계로서 영원히 전승되고 다른 요소들은 보존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희곡은 연극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희곡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연극의 모습까지도 대충 상상해 볼 수 있다.

연극만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고급예술도 드물다. 연극은 첫 감상에서 친숙함과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연극은 인간의 '삶'과 가장 닮아있는 예술형식이기 때문이다. 연극과 가까워지기 위해 몇권의 책을 섭렵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희곡의 이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G.B 테니스의 《연극원론》(이태주 옮김, 현대미학사)이나 마틴 에슬린의 《드라마의 해부》(원재길 옮김, 청하)가 적합하다. 《연극원론》은 희곡의 주요 개념인 플롯, 언어, 인물, 희곡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드라마의 해부》는 비슷한 내용을 취급하면서도 희곡을 직접 창작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책이다.

연극이론이나 희곡이론을 열심히 읽어도 희곡 자체를 읽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희곡 읽기란 독자 스스로 무한한 연극적 상상력을 요구하므로 시나 소설을 읽는 것에 비해 다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희곡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희곡이 생산된 연극의 양식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읽어나가는 동안 무대 장치의 변화와 등장인물들의 몸짓, 어투, 표정 등을 머리 속에 풍부하게 그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희곡 읽기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독서를 요구한다.



몇권의 책을 통한다면 연극의 매력에 더욱 흠뻑 빠질 수 있다.

희곡의 주요 이론과 작품들을 연결시켜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연극의 이해》(김미도 편저, 현대미학사)가 있다. 이 책은 희곡의 주요 형식인 비극, 희극과 주요 양식인 사실주의, 표현주의, 서사극, 부조리극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며 각 형식과 양식이 투영된 대표적인 서양 희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 전문감상자가 되는 즐거움

연극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우리 연극의 역사와 작품들을 알고 싶어진다. 한국연극사의 가장 독보적인 저술은 이두현의 《한국연극사》(학연사)이고, 한국희곡사에 관한 대표적 저술로는 서연호의 《한국 근대희곡사》(고려대 출판부)와 유민영의 《한국현대희곡사》(흥성사)가 있다. 한국의 대표희곡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는 《한국 대표희곡강론》(공편, 현대문화사)과 《한국의 현대희곡》(서연호 엮음, 열음사) 전 3권이 있다. 앞의 책은 탈춤, 인형극, 창극 대본의 일부와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인 <병자 삼인>으로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표 극작가의 대표작 17편을 엄선, 수록하였고 개략적인 한국희곡사와 '작품감상의 길잡이' '연구문제'를 곁들여 한국 희곡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뒤의 책은 근대

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보다 많은 수의 대표작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시대의 대표작가인 오태석, 최인훈, 이강백, 윤조병, 이근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전통극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서연호의 《한국의 탈놀이》(열화당) 전 5권을 권하고 싶다. '출판문화대상'을 수상한 이 시리즈는 한국전통극의 대표 형식인 가면극을 산대 탈놀이, 황해도 탈놀이, 야유·오광대 탈놀이, 꼭두각시 놀이, 서낭굿 탈놀이의 5권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평이하면서도 학구적인 해석과 대표적 연희본, 그리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원색 사진들이 우리 탈춤의 요묘한 미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하나의 예술형식에 대해 전문적인 감상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지적이고 품위 있는 관객으로 성장을 하고 극장을 찾는 것, 막이 내린 후 넓은 유리창의 카페에서 연극같은 삶을 음미하며 한잔의 차를 마시는 것, 그것은 자신을 매우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나르시즘일 수 있다. ❖